

MC :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미리 말씀 드린대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의 김정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 하십니까.

MC :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의원 : 네.

MC : 오늘 주제가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봐야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꽤 오랫동안 표류해오지 않았습니까?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자, 이것을 처음부터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용유도와 무의도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의원 : 예, 영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10여 년 전에 인천공항이 들어섰죠? 영종과 용유 사이에 있는 것이 인천공항입니다. 예, 그래서 용유는 예로부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경인지역에서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유·무의 관광개발계획이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면적이 동구 면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 네, 영종하고 용유는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죠?

의원 : 그렇지요. 영종하고 용유 가운데 인천공항이 1700만 여 평 정도 있습니다.

MC : 영종도 더 이상 섬이 아니잖아요.

의원 : 섬이 아니지요. 그러나 무의도는 아직까지 연육교가 다리가 없어서요. 아직까지 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C :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의원 : 인구는 용유하고 무의 합해서 5000명 됩니다. 다만 인제 150만 명 정도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MC : 예, 여기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많이 찾아 가시더라고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관광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이거 왜 이렇게 표류를 해왔던 것입니까?

의원 :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발계획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같은 경우는 빼어난 자연 환경과 지리적 요건, 특히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MC : 공항 내리며 바로니까요.

의원 : 예, 대규모 복합관광단지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미 면적이 너무 크고 개발계획이 너무 좀 광대하기 때문에 막상 자금 조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10조 2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MC : 보상비만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80조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사전에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으기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C : 사실 용유·무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들었던 회사라고 할까요? 캠퍼스키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 : 예, 예.

MC : 그것은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까?

의원 : 손을 떼지 않았고요. 당시에 인천시와 캠핀스키와의 복합관광단지 개발 협약이 있습니다. 2007년 5월 달에 체결이 됐는데요. 사실은 당시에 캠핀스키가 맨 처음에는 직접 투자를 해서 용유·무의 개발 계획을 시행자로서 참여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전 단계의 회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형식이 아니라 캠핀스키라는 그룹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중동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세계자본을 끌어 모아서...

MC : 투자를 받아서?

의원 : 예,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원 :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4월 경에 중동계 투자 회사인 알파단 그룹과 3천억 규모의 어떤 투자유치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MC : 3천억 원이요?

의원 : 예, 그래서 3천억을 직접 투자하는 형식이 아니고 3천억을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자돈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자본,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나 경제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또 투자자들이 용유·무의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또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할 것 아니겠습니까?

MC : 그렇지요.

의원 :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C : 인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복합단지 개발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는 것인가요?

의원 : 그렇지요. 너무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2009년 12월 달에 지경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이미 득한 상태입니다.

MC : 아, 2009년. 3년 전에.

의원 : 그래서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2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런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서는 지경부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MC : 실시계획, 가만있어요. 2년 지났잖아요?

의원 : 2년이 지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MC : 예외 규정이군요?

의원 :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상황이구요. 실제적으로 경제청에 노력에 대해서 지경부가 체크를 하면서 좀 더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MC :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알파단 그룹, 이것이 중동 자본입니까?

의원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MC : 4월 안에 3천억 원 투자 협약 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비만 10조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억은 말 그대로 종자돈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의원 : 지금 현재는 일괄보상, 일괄개발 방식이었다가

MC :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다.

의원 : 그렇지요. 755만 평 되는데요. 이 모든 토지를 보상 했을 때가 10조 2천억이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C : 아니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좀 더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원 :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사실 인천시라는 공기관에 대해서 상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또 세계적인 투자회사 캠퍼스키가 참여하니까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미 또 2007년 5월에 협약 체결한지 벌써 5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MC : 그렇게 말이에요.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 시행중에는 일체의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MC : 못하게 돼있죠.

의원 :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면 자식이 분가해서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지을 수가 없으면 같이 살 수도 없고,

MC : 그러면 또 다른 데 마련해야 되고, 그럼 또 대출해야 되고.

의원 : 그렇지요.

MC : 대출 받으면 이자 비용이 있어야 되고.

의원 : 그런 면에서 또 총체적 난국이고요. 또 실제로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똑같이 안타깝습니다.

MC : 그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민들 좀 설득하는 작업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생업 유지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면서요?

의원 :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MC : 그런 분들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 : 지금 지원책이 마련되어 않아 있어서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계획, 장기적인 개발계획도 중요하고, 몇 년 후에 진수성찬, 산해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MC : 그렇게 말이지요.

의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주민들한테 고통에 대해서 아니면 당장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짜 인천시가 송영길 시장의 이름을 걸고 잘 하겠습니까라는 어떤 좋은 인식을 심어 주면 주민들도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필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용유도는 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 어업 또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업을 할 수 있었는데...

MC : 식당들도 그렇고요.

의원 : 네, 그러면 농업이나 어업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는 홀로 서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계획 때문에 향후의 개발계획 때문에

농업정책과 어업정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 생업도 고려해서 그러한 대책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MC : 일단은 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 그게 있어야 기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MC : 그런 부분이 선결 돼야겠습니다. 자, 인천의정중계탑 인천광역시의회의 산업위원회 소속 김정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영종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행료,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신데 이게 연장을 해야 될 시점이라면서요?

의원 : 예, 2013년 3월 말이면 통행료 지원 조례가 일몰이 됩니다.

MC : 내년이네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MC :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요?

의원 : 제가 인천시 관계자와 우리 시의회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인천시의회 조례를 위해서 만들어 졌고요. 다만 통행료 지원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 때문에 대법원에 재소가 지 해가면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종, 용유 주민들의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니면 영종, 용유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됐고 다만 영종, 용유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연 58억입니다.

MC : 더 늘어나겠지요. 아무래도.

의원 : 그 것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상대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 4700만 평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인구가 늘어나게 돼서 거기에 대한 통행료에 대한 지원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지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인천시 세수 확보 금액도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십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것에 대한 재정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활성화 측면, 세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행료 지원 연장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영종 지역은 어떠세요?

의원 : 특히 영종, 용유 지역 같은 경우도 섬이었습시다만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특히 용진 군이나 강화 같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요. 용진, 강화 같은 경우는 어떤 수도권, 도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생활을 영유하지 못 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제한은 많이 있습니다.

MC : 제한 많지요.

의원 : 특히 영종, 용유, 경인, 청라지역하고 송도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이니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들어서 수도권정비법은 국내 공장의 확장을 제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유망한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서 인천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 배제가 필요

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MC : 영종에 소방서가 없습니까?

의원 : 예, 소방서는 없고요. 지금 119소방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MC : 센터하고 소방서는 다른 것입니까?

의원 : 예, 다르지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센터를 5개 정도 두고 있어야 되고요.

MC : 좀 더 큰 규모... 상위 개념이로군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 같은 경우 활주로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오는 여객청사 또 아주 고가의 물건이 있는 화물청사 중심으로 소방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무척 광활한 면적에 있는데 센터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MC : 취약한 상태이군요. 그럼 더 늘려야 되겠는데요.

의원 : 그래서 지금 센터가 두 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하늘도시라든가 미단시티, 공항 3단계 사업 또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 관련된 사업 대형건물들이 입주할 텐데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소방서가 들어서서 만약의 사태를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 용유·무의 관광복합단지를 비롯해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눴는데 인천시에 하고 싶은 말씀 딱 3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의원 :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송영길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천의 재정문제, 세수확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치라든가 특히 용유, 무의에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고 공항 주변에 외국인 환승객이 연 5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송시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하는 만큼 더 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MC : 좀 더 뛰어달라, 말씀이신가요?

의원 : 예, 예.

MC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 : 예, 감사합니다.

MC : 고맙습니다. 인천의정중계답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의 김정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